

Landscape Review

Vol.20 조경정보

Contents

생활조경과 녹색환경복지

- 02 _ 조경나눔은 미래세대를 위한 따뜻한 투자 임승빈
- 03 _ 콘쿠이 디자인 프로젝트 김영민
마닐라 GK 마을을 위한 생존조경 황윤혜
- 04 _ 예방의학시대 녹지의 역할 손용훈
생활 속의 마을 가꾸기 윤상준
- 05 _ 시민이여, 호미를 들고 공원을 점령하라! 은수진
허브 향기와 음악이 있는 치유공간 이형숙
- 06 _ 게릴라 가드닝 김병채
서울시 환경상 푸른마을 사례 전재현

조경나눔은 미래세대를 위한 따뜻한 투자

글 · 자료 **임승빈** 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seungbin@snu.ac.kr



이화동 골목길: 노인을 포함한 보행약자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골목길(좌), 정비가 필요한 도로변 녹지(우)



이화동 벽화마을: 2006년 '낙산공공프로젝트'로 벽화가 그려졌으나 지금은 쇠락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 및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8, 9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일인당 평균소득은 늘었으나, 소득 격차는 물론이고 생활환경에서도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건설보다는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조정분야에서도 환경복지 혹은 녹색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고속도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의 개발에 따른 고도성장이 시작되는 70년대에 국토훼손을 치유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조정이라는 학문이 도입되었고, 80년대 이후에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신도시개발과 아파트의 대량공급에 힘입어 조정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대형 공공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정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조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나무 심는 분야'에서 '옥외공간을 만드는 분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서민의 측면에서 보면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을 위한 장식술'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일부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을 보편타당하게 보장하는 것이 환경복지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를 위한 환경복지 달성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조경인 사회참여의 본질이라 하겠다. 특히 조경인의 사회참여는 환경복지와 창조적 커뮤니티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참여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다양한 환경보전관련 법제를 정비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경관관련 법제를 광범위하게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 정비는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경관의 보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국민 개개인의 환경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해 여전히 지역 간, 계층 간 환경적 불평등 문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 수원시를 포함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보다는 골목길, 텃밭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생활환경의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해소의 의미를 갖는 긍정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이 관 주도의 하향식 사업집행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집행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러한 상향식 환경복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자신의 가치를 시민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시민 자신의 가치, 시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산파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은 대개 예산 부족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건설전문가 그룹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재능기부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면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전문가, 특히 조정가의 사회적 책무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설립되었음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정분야는 다양한 혁신적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조경나눔'을 조정의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투자의 하나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경나눔'은 소

외계층에게 평등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에 대한 시민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미래의 조정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따뜻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

요즘에는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봉사과 나눔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단순한 노력봉사와 간헐적 후원이 대부분이고 건설관련 전문가의 봉사와 나눔은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조정분야에서도 그동안 산발적인 봉사활동은 있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조정업의 현실에서 조정가의 나눔활동이 '조정사업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경나눔활동이 우리나라 전체 조정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며, 골목길 가꾸기 사업 등 주민과의 밀착된 수행과정이 필요하여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기 어려운 사업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이 되지는 못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과감하고 다양한 미래지향적 투자가 필요하다. 더욱이 '조경나눔'을 위한 투자는 개인이나 일개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힘을 모아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과도 높고 지속성도 높아진다. 또, 여유가 많아진 후에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능력껏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조정분야의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에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조정 복지를 위한 조정계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정계의 봉사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 또한, 봉사활동이 조정계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이 환경조정복지와 나눔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여 조정분야의 외연을 확대하고 조정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에서는 소외계층의 그린에메니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핵심적 사업이고 이에 더하여 조경나눔 관련 연구, 교육 그리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창립 첫해인 올해에는 '이화동 골목길 가꾸기 봉사', '복지시설 조정봉사', '시민조경아카데미' 등을 서울시와 몇 개의 기업, 그리고 대학생들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 나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녹색나눔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으로부터 녹색지원신청을 받아 전문가를 연결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시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3세계의 환경복지를 위한 국제적 재능나눔 활동도 도모할 것이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조정분야 및 각계에서 예산을 뛰어넘는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고 있음은 조정분야의 밝은 미래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모든 조정인들이 빠짐없이 대한민국의 조정복지를 위한 따뜻한 투자에 동참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콘쿠이 디자인 프로젝트

KDI: Kounkuey Design Initiative 글 · 자료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bresit@gmail.com

2006년, 6명의 하버드 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이 모여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슬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교에 연구 제안서를 제출한다. 이것이 콘쿠이1 프로젝트KDI의 시작이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거대한 무허가 주거지인 키베라Kibera가 KDI의 첫 프로젝트 대상지였다.

키베라는 케냐 수도에서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한 슬럼 지대로, 현재 17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조사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0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키베라의 거주 환경은 극도로 열악하다. 200여 개가 넘는 국제시민단체들이 2천5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아직 키베라에는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장도, 하수처리 시설도 없으며, 화장실은 250명당 하나에 불과하다. 키베라의 가구 대부분은 하루 1달러로 살아가며 실업률은 50%가 넘는다.

프로젝트의 구체적 대상지는 키베라 남동쪽 경계의 습지 지역으로, 상시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주거가 불가능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학생들로 이루어진 KDI는 가장 손쉬운 대안부터 제안한다. 주민들과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한 뒤 쓰레기부터 치우기로 하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석재와 돌담태를 이용하여 홍수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시하고 땅을 확보한다. 그리고 목재 다리를 건설하여 인근의 두 마을과 연결한다. 일단 부지가 확보된 뒤 KDI는 새로운 공동체 시설을 만들기로 하였다. 먼저 평소에는 지역 학교의 교실로 활용되지



프로젝트 이전의 대상지 (출처: KDI공식 홈페이지 http://www.kounkuey.org/Kibera_PPS1.html)



재활용 자재로 지은 커뮤니티센터 (출처: KDI공식 홈페이지 http://www.kounkuey.org/Kibera_PPS1.html)

만, 주말에는 각종 지역 단체 모임을 열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건물의 지붕에는 우수 집수 장치가 마련되어 식수원이 부족한 마을에 2만 리터의 물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이들과 주민들의 여가를 위한 야외 공간을 마련하였다. 텃밭과 벤치와 체스판이 갖추어진 소공원, 그리고 놀이 시설물은 전적으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재활용하였다. 특히 키베라 최초의 어린이 놀이터였던 이 놀이 시설은 만들어지자마자 키베라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KDI는 단순히 공원과 시설물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시설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 관리 프로그램도 제안하였다. 텃밭에서 경작된 작물들은 프로젝트 내의 시장에서 거래되며 수익의 일부는 공원과 시설 유지에 사용된다. 또한 키베라의 아녀자들로 구성된 '키키 웨버'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히아신스를 수확해 이를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판매한다. KDI는 학생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참여자 중 일부가 졸업 후 이를 정식 NGO 단계로 발주시켜 지금도 전 세계의 슬럼 지역에 새로운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KDI는 케냐, 아이티, 미국, 모로코 등지에서 다양한 녹색 복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1. 콘쿠이(kounkuey)는 태국어로 즉각적으로 깨달음을 뜻한다. 이 이름은 당시 태국인 학생이었던 코치 보라콤(Koich Voraakom)이 제안하였다.

마닐라 GK 마을을 위한 생존조경

글 · 자료 **황윤혜** 싱가포르 국립대학 건축학과 조경대학원 조교수 yhwang111@gmail.com



GK brook side 마을에서의 주민과의 대화 ©황윤혜

돕는 아이디어들이 동시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가치도 높일 수 있을까? 지난 2, 3년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MLA 조경학과에서는 '의식주조경'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디자인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 5대 거대도시 중 하나인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아직도 30% 이상의 인구가 가난과 싸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단체들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표적 비이익 지역단체인 GawaKalingaGK의 마을 조성사업은 2003년 이래 마닐라에서만 6,000명이 넘는 국민층들을 수용할 수 있는 300개 이상의 마을들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생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땅이기에 범람지였거나 쓰레기 더미였거나 관계없이, 통상적인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땅을 깎고 콘크리트로 채운 후 최소한의 건축규범만으로 일률적 개발이 진행이다. 이곳에서 외부공간이란 5~10평 내외의 단층집들이 늘어지면서 생긴 좁은 골목길과

마을회관 앞마당, 자투리땅을 이용한 농구장이 전부이며, 특히 도시화와 온난화로 말미암은 홍수피해와 실업문제의 증가는 마을의 존재를 갈수록 위협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문제점투성이인 마을을 벗어나려는 노력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주민들의 긍정적 사고방식이다. 이미 형성된 골목길 문화와 에너지 넘치는 커뮤니티, 해박한 원예지식, 스스로 짓고, 관리하고,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집이 여느 부촌의 그것보다 굳건해 보인다. 이렇듯 현존하는 자원들은 비교적 온화한 기후조건 및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자투리 공간들과 함께 디자인 원칙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 시공사, 지역대표들을 포함한 관련자들과의 요구를 재정의하고 서로 다른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해결안을 제안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요구되었으며, 무엇보다 지역적 수용가능성과 주민의 이해도, 재료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일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특히 채소와 식물을 이용하여 조성된 집 앞 생활정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에 의해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되어, 이웃지역으로도 전파되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건축재료로 이용이 가능한 대나무 마을 숲을 위한 사업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일상생활의 요구사항과 조정가의 비전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나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마닐라 GK 마을의 생존조경 프로젝트 시리즈가 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생활정원의 시공과 수확 ©황윤혜

예방의학시대 녹지의 역할

일본의 가든 호스피탈 구상 글·자료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sonyh@snu.ac.kr

Copyright © 2013 All Rights Reserved.

녹지의 생태적 기능을 넘어서 도시민에 주는 녹지의 치유 효과는 일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원예치료 분야, 산림치료 분야 등이 이미 크게 주목받고 있고, 최근에는 공원도 도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장소로 재평가받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공원에서 건강 만들기’라는 표어로 공원 안에서 시민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안내책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녹지가 주는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많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 녹지의 치유적 가치는 객관적 지표로 이미 증명되었다.

하지만 건강을 직접 다루는 주체인 병원, 의료복지시설에서는 의외로 녹지의 치유 효과에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현장에 있는 병원 관계자들이 녹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치유목적으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적 치료방법에 비하면 녹지는 아직 부차적인 요소라 생각하는 것이다. 즉 예산, 장소, 유지관리의 문제에 막혀 병원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는 2005년 ‘일본 병원의 미래 방향성 수립’ 안에서 병원 내에 적극적인 녹지공간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든 호스피탈Garden Hospital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비된 첫 사례가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있는 국립세유쿠의료센터國立成育醫療研究センター, 구 국립소아병원이다. 이 의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병동과 연구소에 둘러싸인 ‘세유쿠정원’을 조성하여 주변 공원녹지와 연결해 녹지 축을 형성



국립세유쿠의료센터 병동입구 ©함평민



국립세유쿠의료센터 병동입구 비오름 ©함평민

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녹지는 환자, 방문자, 직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와 치유 목적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 가능한 녹지가 되었다. 이외에도 가와사키 시립다마병원川崎市立多摩病院, 시즈오카 암센터静岡がんセンター, 센리 재활병원千里リハビリテーション病院 등이 가든 호스피탈 개념이 적용된 병원녹지의 조성사례이다.

지금까지 작업 효율성만이 중시되어 주차장, 서비스 동선이 녹지보다 우선된 병원의 공간계획은 가든 호스피탈 구상을 통해 환자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병원 녹지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2008년 일본녹화공학회 주제로 개최된 ‘병원녹화의 최전선’이라는 심포지움에서는 녹지의 치유 효과, 도시녹지로서의 병원녹지의 방향성 등이 논의되었다.

조경과 의료복지를 융합한 녹지복지학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치바대학 이와사키 유타카 교수는 현재 일본의 가든 호스피탈 추진 활동에 대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물리적 공간설계에만 치우치지 말고 환자와 방문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미 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녹지복지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분야이고 가든 호스피탈은 발전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병원 및 요양시설의 녹지는 이용자가 특화된 공간이며 치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목적성 있는 조경이다. 치유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조경공간은 의료전문가와 협력하여 만드는 새로운 조경가의 활동영역이고, 국내 조경가도 앞으로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가능성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생활 속의 마을 가꾸기

영국 왕립원예협회의 브리테인 인 블룸Britain in Bloom 글·자료 **윤상준**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총무이사 alpinet0504@hotmail.com

Copyright © 2013 All Rights Reserved.

영국은 유럽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정원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유명하다.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주거문화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국인들은 조그마한 크기의 정원이라도 있는 집에서 손수 정원을 가꾸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러한 정원에 대한 열정은 어느 순간 울타리는 넘어 지역사회의 공공의 공간으로 확대되어 생활 조경을 실천하고 있다.

내가 사는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는 “브리테인 인 블룸”은 세계의 원예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200년 역사의 영국 왕립원예협회가 주관하는 영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예 캠페인이다. 영국관광청에 의해 1963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원예 기자였던 로이 헤이 Roy Hay가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드골 대통령의 요구로 프랑스 관광청이 1959년에 시작한 “플뢰리스망 드 프랑스Fleurissement de France”1를 보고 감명받아 영국관광청에 제안하였다. 당시 영국 관광청장인 렌 리코리쉬Len Lickorish와 함께 위원회를 조성하여 시작하였고, 첫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이듬해인 1964년부터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였다. 196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한 개의 도시만 수상하다 1970년부터는 거주지의 크기에 따라 여러 범주로 나누어 수상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부터는 정부의 후원이 중단되면서 The Tidy Britain Group이 행사를 주관하였고 2002년부터는 영국왕립원예 협회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행사는 현재 인구수에 따라 지역사회, 마을, 소도시, 대도시 그리고 해안마을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범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규모에 맞추어 열두 개의 유형에 따라 평가기준을 나누고,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2년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고로 잘 가꾼 마을을 선정한다. 심사는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심사는 6월과 7월에 시작되는데 지역별로 대표마을을 뽑는 지역경연이다. 두 번째 심

사는 전국적 경연으로 8월에 이루어지는 데 각 지역에서 선정되어 올라온 마을들을 놓고 최종 심사에 오를 마을들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듬해 최종 리스트에 오른 마을을 대상으로 8월 혹은 9월에 범주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지역을 선정한다. 올해도 현재 80개의 마을이 최종 심사에 올라와 있으며 10월에 우수 마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가꾸어 나가는 다양한 범주의 공동체 꾸미기 프로그램인 “브리테인 인 블룸”은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연에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이 화합하고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환경이 열악한 공동체, 예를 들어 도시의 슬럼가 경우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1,000개가 넘는 마을이 신청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2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그들의 거주 지역을 청소하고 녹화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면서 생활 속의 조경을 실천하고 있다.

1. ‘꽃과 나무가 만개하여 전국을 넘쳐흐르게 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한 프랑스의 지역사회 가꾸기 캠페인이다. 현재는 그 명칭이 Concours des villes et villages fleuris으로 바뀌었다.

시민이여, 호미를 들고 공원을 점령하라!

선유도공원 도시정원사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하여 글·자료 **온수진**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선유도공원 소장 biotopia@seoul.go.kr

Copyright © 2013 All Rights Reserved.

지난해 10월, 인연이 닿을 것 같지 않던 선유도공원에 근무하는 영광을 얻었다. 개월 무렵 몇 번 다녀본 이후 내내 발길을 못하다가 발령이 나고 보니, 식상한 말 같지만 늘 신선한, 어디 만만히 볼 공간이 한구석도 없는 품격 있는 공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쓸쓸하고 무언가 색이 바랜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정원’의 문제였고, 이를 조급하게 묶어낸 것이 앞으로 설명할 ‘도시정원사City Gardener 자원봉사자’이다.

선유도공원에는 ‘시간의 정원’이라는 걸출한 공간이 있다. 우리가 늘 꿈꾸는 ‘비밀의 화원’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한 포기, 한 무더기를 늘 달리 다루어야 하는 이 공간은 조경가의 의도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애당초 서울시에 없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예산을 들여 당초 설계의도를 공사로써 신속히 복원하는 방법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변화시켜 나가는 것 두 가지였다. 당연히 돈도 없었지만 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경공사는 하자 문제와 지속적인 관리부실만 낳을 것이 뻔하였으므로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마



무궁화 전지작업 ©온수진



도시정원사 자원봉사자 ©온수진

허브 향기와 음악이 있는 치유공간

장애아동단기보호시설 천애원 치료정원 ‘사랑샘’ 글·자료 **이형숙**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soolee@gachon.ac.kr

Copyright © 2013 All Rights Reserved.

‘소외계층 녹색복지 증진사업’은 2008년부터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과 한국사회복지사회회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공공복지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이 나 중증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옥상녹화, 담장벽면 녹화, 원예치료실, 실내정원, 이동식 정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 및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조성된 ‘사랑샘’은 사회복지법인 천애원이 운영하는 지적장애아동 단기보호시설 내에 있는 치료정원으로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다. 천애원은 2006년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자유로운 형태의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 야외놀이터 조성을 시도하였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때 이웃주민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버려진 땅이었던 곳은 2천여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치료정원으로 탈바꿈하였다.

‘사랑샘’ 치료정원은 규모는 작지만 성장기 지적장애아동들에게 요구되는 감각적 경험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오감체험공간을 제공한다. 장미, 화살나무, 단풍나무, 귀퉁나무, 인동덩굴 등을 다양하게 식재하여 연중 다양한 시각적 자극과 계절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허브와 같은 방향성 식물을 통해 지적장애아동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물로는 철쭉을 활용



사랑샘 전경 ©이형숙



사랑샘 휴게데코 ©이형숙



사랑샘 텃밭정원 ©이형숙

한 파고라 형태의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와 휴식을 위한 앉음벽이 설치되어있고, 한쪽 구석에는 딸기, 앵두나무 등이 식재된 원예작업장이 갖춰져 원예치료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원에는 음향시설을 마련하여 항상 음악을 통한 정서적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닥 데크는 밝은 색상의 꽃과 무당벌레 그림으로 다양한 흥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공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음악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놀이, 장난감, 수업, 다과회 등 아이들의 다양한 옥외활동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인접한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인들도 찾는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설 내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흥미와 경험의 범위가 위축되기 쉬운 장애아동들에게 ‘사랑샘’은 자연과 접하고 건강한 자극을 통해 긍정적 자아 형성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아동들이 자연에 반응하고 호기심을 갖는 정도에는 개인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능력 및 특성을 고려한 비정규적인 원예치료도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 외부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밝아진 것을 느낀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사랑샘’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 탓에 바깥활동이 제한된 소외계층들에게 접근이 쉬운 거리에 자연을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

는 녹색복지사업이 여타의 정책적 복지 프로그램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게릴라 가드닝

Guerrilla Gardening 글 · 자료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chaum@chol.com

해외사례



1. 쓰레기통에 피어난 꽃: Aulagarden
2. 처칠의 잔디 모히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London, Westminster)에서 수많은 게릴라들이 만든 작품. 2000년
3. 포스터에 심은 식물: 토론토, 에릭 청, 샌 마틴달(Toronto, Eric Cheung and Sean Martindale)

게릴라 가드닝이란 무엇일까? 게릴라의 어원적 의미를 찾아보면 '작은 전쟁'을 뜻하는 스페인 말로, 게릴라 가드닝에서의 '전쟁'이란 반드시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리처드 레이놀즈는 '남의 땅에 불법으로 꽃밭을 가꾸는 활동 자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Guerrilla Gardening 활동

게릴라 가드너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우선 조경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따분한 볼모지라고 여기는 곳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어 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다. 돌재, 수의창출 측면의 곡식 재배다. 이는 일차적으로 궁핍을 해결하지만, 현대는 산업화된 농업에 기대지 않고 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위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측면에서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녹색공동체가 생기면 그 도시에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며 잠재적으로는 건강증진, 지역가치 상승, 식물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 등 여러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Guerrilla Gardening 사례

일반적으로 게릴라 가드닝은 '빈 공간'에 꽃밭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지만, 해외 사례의 경우 쓰레기통, 소화전, 우체통 등에 꽃밭 조성하여 제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평범한 동상의 머리 또는 벽면의 포스터에 가드닝을 하는 등 실험적인 작품도 행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개

국내사례



4

5

인 또는 동호회를 통한 가드너들이 빈 공간에 꽃밭을 만들거나 불량한 경관의 미화, 상실한 공간의 제 기능 찾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합법적인 게릴라 가드닝도 행해지고 있다.

최근 녹색도시, 환경복지, 산림복지 등 도시 내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단순한 녹음 조성을 넘어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가치 상승, 복지 증진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법적인 도시공원 조성 외 시민이 직접 삶의 터전 곳곳을 녹색 환경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이것이 게릴라 가드닝의 가장 큰 잠재력일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실천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며 점진적으로 삶의 곳곳이 녹색 환경으로 되는 것, 또한 이 장소가 존속되는 것이 '작은 전쟁'에서의 진정한 게릴라 가드닝의 승리일 것이다.

- 참고 및 인용문헌** 게릴라 가드닝, 리처드 레이놀즈 지음, 여성후 울김, 들녘, 2012, 노컷뉴스, 2013-04-19
[http://cafe.naver.com/ggmovement/247;](http://cafe.naver.com/ggmovement/247)
<http://cafe.naver.com/ggmovement/53;>
<http://blog.naver.com/gardenlab?Redirect=Log&logNo=70147923176;>
<http://blog.naver.com/dwhoo?Redirect=Log&logNo=130162503153;>
http://blog.naver.com/love_baby_s?Redirect=Log&logNo=70167526799

서울시 환경상 푸른마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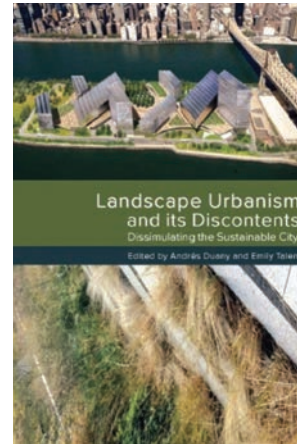
글 · 자료 전재현 삼성에버랜드(주) 부소장 jh66.cheon@samsung.com

'서울특별시환경상'은 서울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에너지 절약, 푸른도시 가꾸기에 남달리 헌신·봉사해온 시민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서, 199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7회를 맞았으며, 2004년부터 환경부문과 조경부문을 통합해 시상하고 있다. 시상분야는 녹색기술,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조경생태, 푸른마을의 5개 분야로 공적심사를 거쳐 총 21명대상 1명,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을 선정해 매년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에 시상해왔으나, 올해는 7월 중에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환경상' 분야별 추천·응모대상은 매년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소재하고 있는 시민 또는 단체이며, 녹색기술·에너지절약·환경보전 분야는 친환경 녹색기술개발·확산보급,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자원재활용 등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조경생태분야는 지난 3년 내 서울시 내에 설계·시공 완료된 옥외조경작품의 설계업체 또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푸른마을 분야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마을단위로 담장 및 벽면녹화, 골목길녹화, 꽃밭조성 등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로 학교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BOOKS &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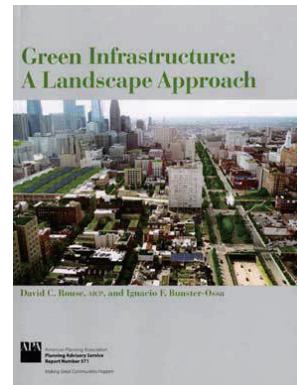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 Dissimulating the Sustainable City (2013) by Andres Duany

전진형

현대 서구 사회에서 자연은 종종 휴식처로 여겨지지만 안타깝게도 도시는 삭막한 곳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해석은 인간의 생활터전과 자연환경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 환경과 자연환경 사이의 괴리감을 해결해줄 방법을 찾는 것이 도시 이론가들에게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뉴 어바니즘의 선구자로 알려진 Andres Duany와 여러 도시 이론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도시개혁에 대한 논쟁과 현재 양극화되어 경쟁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뉴 어바니즘의 두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논평들을 모은 책이다. Andres Duany와 James Howard Kunstler와 같이 잘 알려진 영향력 있는 도시 이론가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생태학적인 개념을 기초로 하지만, 뉴 어바니즘은 인공건축물을 고려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정의하며, 현대 도시에서 가장 주된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성장, 마을 디자인, 지속가능한 개발, 자연과 균형을 이룬 도시 만들기 등에 대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뉴 어바니즘의 영향을 고찰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뉴 어바니즘은 서로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는 이론에 치우친 반면 후자는 보다 실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지는 유사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디자인의 선두에 서 있다는 점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개념에 대한 분석들과 상생에 대한 가능성의 타진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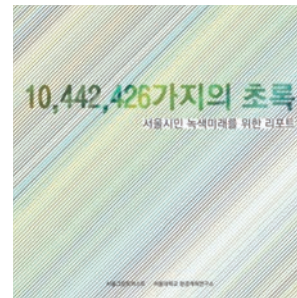


Green Infrastructure

: A Landscape Approach (2013) by David Rouse, Ignacio Bunster-Ossa

전진형

미국 조경설계회사 Wallace Roberts & Todd 대표인 David Rouse와 Ignacio Bunster-Ossa가 공동저술한 'Green Infrastructure: A Landscape Approach'는 그린인프라와 관련한 수많은 기존 저서와 달리, 조경 계획설계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린인프라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그린인프라에 대한 조경적 접근이란, 특정 대상지역의 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계획전략을 물리적 현실로 전환하는 디자인적인 접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그린인프라의 역사적 발달과 정의, 그린인프라의 계획 및 설계원리, 조경과 그린인프라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린 인프라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6개의 사례를 광역적 범위, 대도시, 소규모, 커뮤니티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그린인프라로서의 공원, 그린웨이, 하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0, 442, 426가지의 초록

: (2013) 서울시민의 녹색미래를 위한 리포트, 서울그린트러스트·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조경진

오늘날 녹색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녹색은 그동안 공간과 디자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서울그린트러스트는 환경, 공원, 사회, 트렌드, 디자인, 연구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활동 중인 7명의 공동연구원과 함께 사람을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녹색문화를 찾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 책은 녹색문화 관점에서 예측한 미래도시의 트렌드 키워드와 유아에서부터 회년층에 이르는 서울 시민 50인으로부터 들은 일상과 녹색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공유해야 할 녹색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아젠다는 몸, 마음, 일과 여가, 일상, 공동체 등 5가지 영역의 13가지 키워드로 제시되었으며, 이슈와 전략, 국내외 사례들이 함께 다루어져 있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최우수상 ((사)여성환경연대)

1. 폐자재와 쓰레기로 넘쳐나던 옥상 (출처: 서울시 조경과)
2. 텃밭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작물 재배 (출처: 서울시 조경과)
3. 영등포 달시장 수확물 판매 (출처: 서울시 조경과)

NEWS

정리 **신현돈** 서안알앤디디자인(주) 대표이사 shinhyeondon@korea.com

서울시 "10분 내 지역마다 공원"...푸른도시 선언



지난 4월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범령상 공원녹지 범주에 한정됐던 공원의 개념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고 새로운 도시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푸른도시 선언'의 선포식이 있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시민, 공공조경가 전문가 그룹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푸른도시 선언은 기존 공원녹지 정책의 중심을 도시인프라 등의 공간 차원에서 사람으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행정주도를 시민 참여로 바꾸는 것이다. 화제폭탄 서울! 골목 골목 꽃밭, 동네방네 숲길을 슬로건으로 하는 푸른도시 선언문은 1개의 전문과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600년 역사를 가진 서울의 정체성 강화 ▲소통, 공감, 재생 등 현재 사회의 요구와 트렌드 반영 ▲녹색공유도시, 녹색일자리 등 미래상 제시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의 3가지 정신을 담았다.

서울시는 이 선언을 통해 공원은 행정기관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며 공원이 공동체 생활의 거점역할을 하는 공동체 회복의 장이 되길 기대했다. 시는 앞으로 푸른도시 선언문을 학교, 아파트, 병원, 구청, 마을 등 다양한 주제에 릴레이 선언을 유도해 푸른도시 만들기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실시

서울시가 올봄부터 서울 시내 전체 총가구 수인 355만 가구가 상주나 봄꽃 하나라도 심는다는 것을 목표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녹화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13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콘크리트 대신 도시를 꽃과 나무로 채우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연중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나무 심기 가장 좋은 기간인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식목월'로 지정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꽃과 나무를 심도록 독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의 0.74%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정원이 있는 집은 주택 가격이 평균 16%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우선 꽃과 나무를 심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 참여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각 생활권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녹지를 가꾸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연중 6개 생활권아파트, 상가, 학교, 골목길, 동네, 가로변 피녹지 중점구역부터 꽃이나 나무를 심는 녹색가꾸기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산림교육 통한 녹색복지

유아의 기본교육과정인 체험·놀이 위주로 바뀌고 주 5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숲을 교육자원으로 쓸 수 있는 체계화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5월 1일 숲을 유아, 청소년,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세대·계층별 산림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산림교육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아숲체험원, 청소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상에게 맞는 산림교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2017년까지 250곳의 유아숲체험원을 만들고, 전국 권역별로 10곳의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갖춰 산림교육전담부서 설치, 연구인력 늘리기에 힘쓸 예정이다. 산림교육센터가 모두 지정되면 한해 180만 명이 숲에서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또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산림계열 학교와 연계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산림교육전문가를 길러 내고 교수요원 연수지원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산림교육분야가 전문직종이 될 수 있게 일자리를 늘리는 등 관련 복지제도도 손질하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차별화된 산림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교육대상별 주제와 형태가 있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교재, 교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산림교육콘텐츠개발에 힘쓰고,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망을 갖춰 다양한 정책채널을 만들고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숲으로 가자' 범국민운동을 펼치는 등 산림교육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복지국가, 희망의 새 시대"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구수목원에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정부는 '환경복지국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환경의 날 주제로 정하고,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개최해 온 관행에서 탈피해 시·도의 추천을 받은 지역 현장 중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꽃이 핀다'라는 말을 실린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수목원에서 정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해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환경과 ICT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환경산업이 세계 환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또한, 이날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민간단체,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의 유공자 39명에게 정부 포상도 수여됐다.

한편 지난 1988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2011년의 총남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사례 이외에는 모두 수도권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대구수목원은 7년 동안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3여 년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합심해 생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창조환경의 대표적 현장으로, 환경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창의성과 열정으로 새 시대의 희망을 열어간다는 환경복지 국가의 비전을 잘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조경가협회, 2013년은 공공서비스의 해

미국조경가협회ASLA가 올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YPS'다. YPS란 'Year of Public Service'의 약자로, '공공서비스의 해'를 뜻한다. 근대 한국조경의 화두가 조경가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이다. 미국 역시 조경가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며 조경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조경가협회 회원들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프로젝트를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단체로 보내주고, 미국조경가협회는 이를 한 곳으로 취합하여 웹사이트와 SNS에 이카이브로 구성해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YPS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미국조경가협회는 국립공원관리청과 파트너십을 맺고 각 지역에 산재한 49개 지부의 미국 조경가들이 가로, 자전거도로 그리고 휴게시설물 등에 대해 기술자문을 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ASLA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가 차원을 넘어 조경의 전문성을 대중에게 인지도 키며, 조경가의 역할을 주목받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집자 레터

이번 호의 주제는 "생활조경과 녹색환경복지"이다. '조경'하면 먹고 살만한 후에야 생각하는 여유 산물이라는 뿌리 깊은 오해가 있다. 아마도 조경의 뿌리가 되는 정원문화를 가진 자 중심의 여가활동으로 간주하는 편견 때문일 수도 있다. 조경가의 노력을 만들어낸 공간은 잡지의 화려한 이미지로 장식되는 작품이 아닌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소위 사진발이 잘 나오는 공원이나 광장보다는 보다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 가까운 장소인 동네자투리 공간, 길, 옥상, 도로 변녹지 등에 주목한다. 이러한 생활조경이 주목받는 것은 녹색환경복지에 대한 관심에 관련된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녹색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최근 도시정책의 중요한 화두이다. 누구나 일상공간에서 녹색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녹색기본권의 관점에서 생활영역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도 전국의 생태휴식공간과 생활공원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 이제 녹색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니고 생존의 필수 여건이다. 이제 공원녹지를 통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 조경가들의 생각의 전환, 실천의 변화가 요구된다.

조경정보지 편집위원장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02-565-2055 Fax. 02-565-2056

e-mail. kila96@chol.com

Homepage. www.kila.or.kr

발행 및 편집위원 정보

발행일 | 2013년 7월 5일

발행처 | (사)한국조경학회(김한배 회장, 서울시립대)

편집위원장 | 조경진(서울대)

책임편집위원

이형숙(가천대)

편집위원

김병채(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김영민(서울시립대),

송용훈(서울대), 신현돈(서안알앤디디자인(주)),

윤상준((사)한국전통조경학회),

전재현(삼성에버랜드(주)), 전진형(고려대)

간사

유은자((사)한국조경학회), 임경숙(환경과조경)